

‘대산 1호 프로젝트’ 첫 발... 여수·울산 등 산단재편 탄력

롯데·HD현대케미칼 통합법인 설립
고부가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1차 목표 ‘2028년 흑자 전환’ 설정

정부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대규모 설비 감축과 통합법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여수·울산 등 주요 석화산단에서도 후속 재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산 단지에 적절한 정부 지원책이 집중된 만큼,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에서도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합동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대산 1호는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통합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방식이다. 통합 이후 지분 구조는 5대5로 재편되며, 양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각각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연산 110만톤 규모의 롯데케미칼 대산 나프타분해시설(NC)

C)은 가동을 중단하고, HD현대케미칼의 연산 85만톤 설비만 운영한다. 중복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다운스트림 설비를 축소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설 통합과 생산 효율화에 약 2450억원이 투입된다.

통합 법인은 범용 제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탄성 경량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바이오 나프타 기반 친환경 제품 등 고부가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에 335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합병회사는 사업재편 완료 시점인 2028년 흑자 전환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금융제제·원가 절감 패키지를 마련했다. HD현대케미칼에 최대 1조원의 신규 자금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의 최대 1조원을 영구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 부문에서는 합병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최대 100% 감면과 법인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원가 절감 측면에서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활용해 전기료를 4~5%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와 원자재 무관세 적용 연장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분야에는 고부가 소재와 인공지능(AI) 공정혁신에 26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첫 사업재편이 마무리되면서 여수·울산 등 다른 산단의 구조조정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여수·울산 석유화학 단지는 노후 설비 폐쇄와 NCC 감산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감산 규모와 손실 분담, 합작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최종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다. 여수에서는 여천NCC 설비 조정을 두고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울산은 에스오일의 사힌 프로젝트와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의 기존 감산 조치 등이 맞물리면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산 1호를 통해 정부 지원의 기준이 제시된 만큼 후속 산단도 이를 토대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지원이 더해진 만큼 각 기업의 사업 전환 의지와 실행 속도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KB금융그룹 | 국민의 희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KOSPI 6,000



*K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439호(2026.02.25~2027.02.24)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비대면 계좌)HTS 0.014%~0.015%, 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KB증권

정부, 2조대 금융지원 뒷받침

구윤철 부총리 선제적 혁신 강조
“취득세 100% 감면, 에너지 특구 지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간의 관행타파·선제적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기는 성장할 수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대산 1호 사업재편’ 지원 패키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고부가 전환 등 신규자금, 영구채 전환 등 2조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취득세를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하겠다”며 “기업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선금 제도(공공공사에서 계약금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금 최초 지급 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 선금 지급시에도 그 지급액을 7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수질 관련해서는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화했던 낙동강 수질을 (기존 2등급에서)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 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